

방탄소년단, 북중미 월드컵 하프타임쇼 헤드...정국 카타르 월드컵 개막공연 잇는 새역사(종합)

등록 2026.05.14 13:50:51 | 수정 2026.05.14 13:54:17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사진 = 빅히트 뮤직(하이브) 제공) 2026.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대규모 '하프타임 쇼'에 헤드라이너로 나선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은 오는 7월19일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헤드라이너로 방탄소년단, 마돈나, 사키라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공연과 함께 공식 사운드트랙 '드림머스'에 참여했다.

이번 공연은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아티스트 큐레이션을 맡았다. 자선 단체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이 제작을 담당한다.

앞서 FIFA와 글로벌 시티즌은 지난해 여름 클럽 월드컵 결승 당시 도자 캣 등을 내세워 시험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16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월드컵은 중계 시청자 외에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했다.

사키라는 아프로비츠 스타 버나 보이와 함께한 공식 주제가 '다이 다이(Dai Dai)'를 발표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알코르=AP/뉴시스]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20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 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다. 정국은 카타르 국민가수 파하드 알 쿠바이시와 함께 이번 대회 공식 주제가인 '드림러스(Dreamers)'를 열창했다. 2022.11.21.

그녀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오른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제니퍼 로페즈와 함께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공동 헤드라이너로 활약했다.

스포츠 경기 중 펼쳐지는 대규모 음악 공연은 미국 팬들에게 생소한 일이 아니다. 배드 버니, 켄드릭 라마, 리애나와 같은 스타들이 출연하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통상적으로 미국 내에서 1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공연 전후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이달 초 FIFA는 세 곳의 개최국에서 열리는 첫 경기에 앞서 개막식 라인업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6월 12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소파이(SoFi)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에 앞서 케이티 페리, 퓨처, 아니타, 블랙핑크 리사, 레마, 타일라 등의 뮤지션들이 공연한다.

축구 경기에서 그런데 하프타임쇼는 이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열성적인 축구 팬들에게는 흥분을 자아내기 위한 별도의 축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하프타임 쇼의 도입은 순수주의자들과의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맨해튼 뉴스쿨의 국제 관계학 교수인 손 제이콥스(Sean Jacobs)는 뉴욕타임스에 "일반적으로 15분의 하프타임은 신성불가침한 영역으로 인식된다. 누구도 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라면서 "미국에서 자랐다면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의 결합이 익숙하겠지만, 아프리카나 유럽, 아시아, 혹은 남미 사람들에게 축구를 사랑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